

buddhanews.com

# 말을 하면 그 말과 뜻과 행이 같아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집에서 물 떠 놓고 빚지 마라. 무조건 집에서 뭐 위하고 놓고 그러지 마라. 그저 밥상에 가더라도 부쳐넣고 그 형상이 나와 물이 아니고 생명이 들어 아니고 마음이 들어 아니니 가더라도 동글게 마음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삼 배를 지극하게 올려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벗어날 거를 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전성이라는 게 참, 병고도 유전성이 있고 마음먹고 사는 것도 유전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유전성에 따랐고 영계성에 따랐다면 문제는 컵입니다. 이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한테도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걸 거 거다가 맡겨 놓은 거 거지만 이 하는 걸로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또 그러니까요. 그래야 모든 잡음이 없이, 즉 말하자면 현상나 그런 모든 거를 옹공로에다 넣어서 새 쇠로 자동적으로 빼내듯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공부를 내면으로 잘해서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살아나가는 길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구멍이 아니라 넣고 고생을 시킬 게 뭐 있습니까, 네? 자기 육신인데, 이 도리를 알면 돌에다가 올려놔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자나 깨나 일하나 없으나 서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모든 건 그 근본이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셨죠?

###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네요.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 세상 이치도 모르니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고 싶는데 그러기엔 제 앞에 놓인 현실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스님, 이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나요?

☞ 오늘날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을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즐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 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걸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 는지도 모르겠고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고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굶餓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굶餓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굶餓가였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도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르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늘어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푸석 푸석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헛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아니 햇빛 주라 목은 빛 같으라, 이런 여념이 없이 그냥 들고 들고 또 들고 들고가 머리는 허영계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바로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바로 깎아내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그거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주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렇습니까? 그러니 기복으로 해서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떼어 놓을 때 공짜로 떼어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기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때에 옹공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님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율종처럼 하던 화신인데 어찌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습니까?

아니,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으나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자유권을 얻으려면 첫째 모든 건 주인공을 믿고, 자기 참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주인공이란 꼭 찬 나라고. 그러니까 이 안테나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안되는 것도 거기서밖에 못해.' 하고 맡기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라고 그러려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런 여건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꼭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둘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껍질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이 생길 것입니다.

##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마귀가 들어서 어떻게 저팔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라 헌금을 내라고 하던데 저는 그 소리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마귀나라는 말을 한다는 데 정말 그렇습니까?

☞ 마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마귀짓을 하니 마귀라는 거지, 마귀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든 또 불교든 마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수는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부처님은 "각자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면,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이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 왜 그것이 걸리느냐? 그게 '각자' 라는 소릴 안 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한 분으로 알고 했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부터 알아야 예수의 마음과 풀이 아니게 다 잘 알 텐데 나는 빼놓고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니 알아지나요? 전화통도 양면이 전화를 봐야 이게 오고 가고 통화가 되는 거지 한쪽만 놓고는 통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존재가 없다고요. 지금

맥의 몸통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따져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물 한 컵을 만약에 맥에서 먹는 데에서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맥의 몸속에서 제각기 그 물맛을 봤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같이 먹은 한 개체지. 그러니까 공했다는 얘기도, 어떤 것이 따로 먹었다고 꼬집어서 할 수 없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알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도리가 뭐냐 하면, 이것은 내 견해로 말하는 겁니다. 각자라는 소리를 안 한다면 모습으로 물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들과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찾게끔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라고 했지 누가 가짜를 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서, 내 진짜를 알아서 이런 거지 너 가짜를 생각해서 내 가짜를 믿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나라는 소리는 제각기 모두 자기 차원대로의 마귀나라는 소리가 나오지, 나는 생각할 때 마귀나라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강도가 우연히 살렸다 이렇다면, 그 살려진 사람은 그 강도를 강도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모르니까 벌어지고 그러는 문제들이지 누가 나쁘고 좋다고 없다는 얘깁죠.

모두가 사람이 살아야하려면 자기가 몰라서 저지르는 일도 없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지, 쪽이 이거는 나쁘고 마귀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눈물이 있고 전부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아픈 일도 많고, 어느 사람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 없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신 뜻은 그 '착한 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한마디 '착한 일 많이 해라.' 한 소리가 그 한마디가 아니라 천체가 거기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또 불교를 믿든지 그거를 올바르게 해라 이겁니다. '주님!' 하더라도 그 '주인공' 하거나 '주님' 하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 하더라도 안으로 해야지 바깥으로 굴러지 말라. 모두 등글러서 안으로 찾아야 이릅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중에, 아니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우리가 전부, 나무 한 그루도 모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 참, 눈물겨울 일 많아서 생기는 일들, 아파서 생기는 일들, 몰라서 생기는 일들, 상황이 어떻게 급급하게 돼서 생기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지 마귀

니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 이 세상에 마귀니는 없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 중생의 참 고통을 모를 것 같아요

☞ 스님들은 결혼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개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자식을 키우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떠나서 혼자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수행의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실상 시집 장가를 안 간다. 이러한 뜻은 뭐냐 하면 인생이 한 철이라 영화배우들이 살다가 막을 내리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한 생, 한 철을 살다가 모든 것을 연결 지어서 착을 두고 사랑한답시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세세생생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깁죠. 그건 왜냐하면 마음은 벌써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한 생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다 일어나 다 배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들어 아닌 까닭에 수없이 거쳐 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온 그 자체의 관계를 수없이 해 나왔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그 고생을 하고 먹고하고 먹고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정신을, 정수를 뺏기고 산다. 또 뺏아먹는 놈이 있다. 뺏기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습을 갖다가, 즉 막막하면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정수를 빼다가 놓고 연구 대상을 삼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급하냐 이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자기 하나만이라도 벗어나야 자기가 인연했던 그 무리들을 다 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죠. 아주 투철하죠. 칼을 뽑았으면 이 칼이 다 건질 수 있는 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느냐. 투철하게 양면을 놓고 그냥 자기를 바싹 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굳이 더기를 붙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지금 살얼음판을 밟고 가느냐, 또는 발밑에 불이 났는데 지금 그 구멍을 찾아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이 나서 구멍을 찾는데 장가를 생각하고 시집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한방(韓方)치료로 당뇨.혈압.비만**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당뇨약 복용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맞춤 한방치료**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학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7-중-6353호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계, 가영, 향수나열, 도량계, 다계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범고 49재 및 천도재

**각단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동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학장 일혜스님

접수 및 문의 **053)986-1080**  
**011-9361-556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